

26.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상암·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개소

TTA GS인증의 성공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됐으며, 개발기업들 또한 자사 제품의 품질과 인지도를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GS인증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TTA의 시험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나, 시험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TTA가 위치한 분당까지 이동해야 하는 수도권 서북부와 지방 기업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여러 불편함을 호소했다.

소프트웨어시험인증,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한 발 더 나아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 구축을 계획하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TTA에 누리꿈스퀘어 입주를 제안, 2008년 2월 TTA는 이곳에 상암 소프트웨어시험센터를 개소하게 됐다. 총면적 617㎡ 규모의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는 벤더별 중대형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다양한 시험자동화 도구를 갖추고 GS 시험인증·R&D 과제검증·품질컨설팅 및 오픈랩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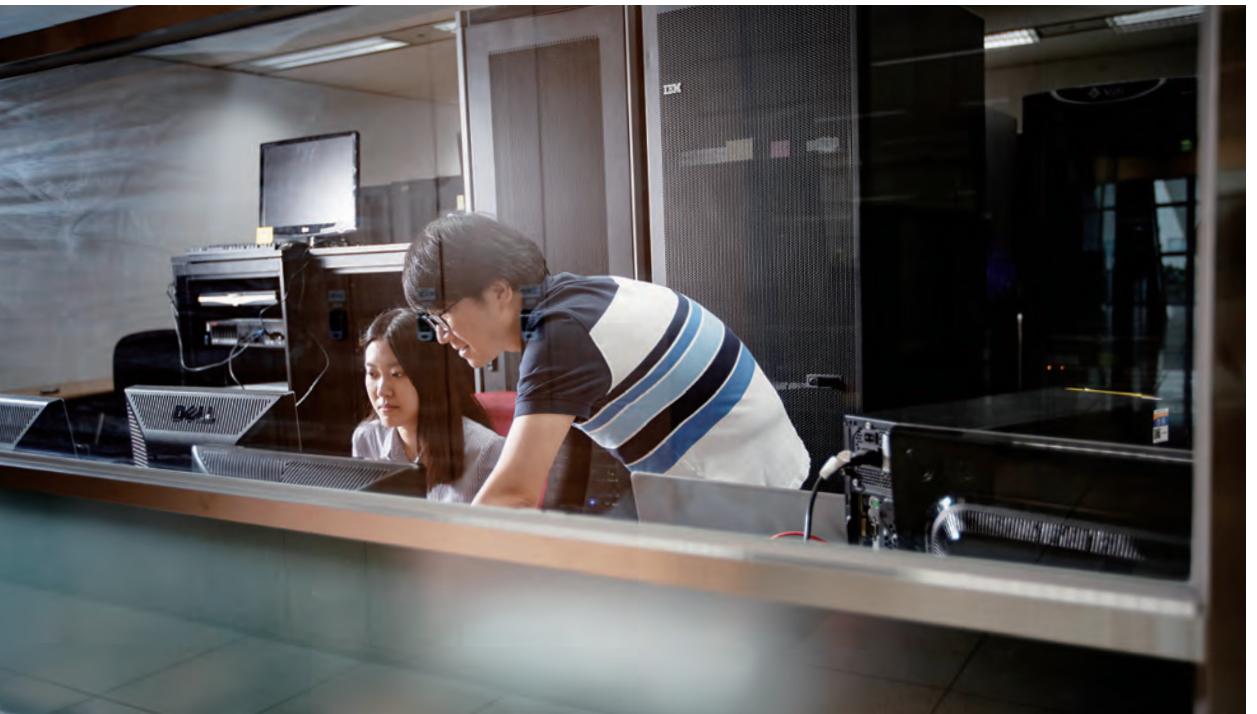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의 성공을 발판으로 TTA는 수도권 외 지역에도 지역 센터 구축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가장 시험 수요가 많으며 지역시험소 유치에 적극적인 대구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대구소프트웨어시험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 7월 계명대학교 내에 인프라를 구축한 대구소프트웨어시험센터는 2017년 3월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12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SW융합기술지원센터로 확장·이전했다.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의 총면적은 565㎡ 규모로 융합소프트웨어 시험에 특화된 인프라를 구축, 영남권역은 물론 대전 이남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상암·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품질 인식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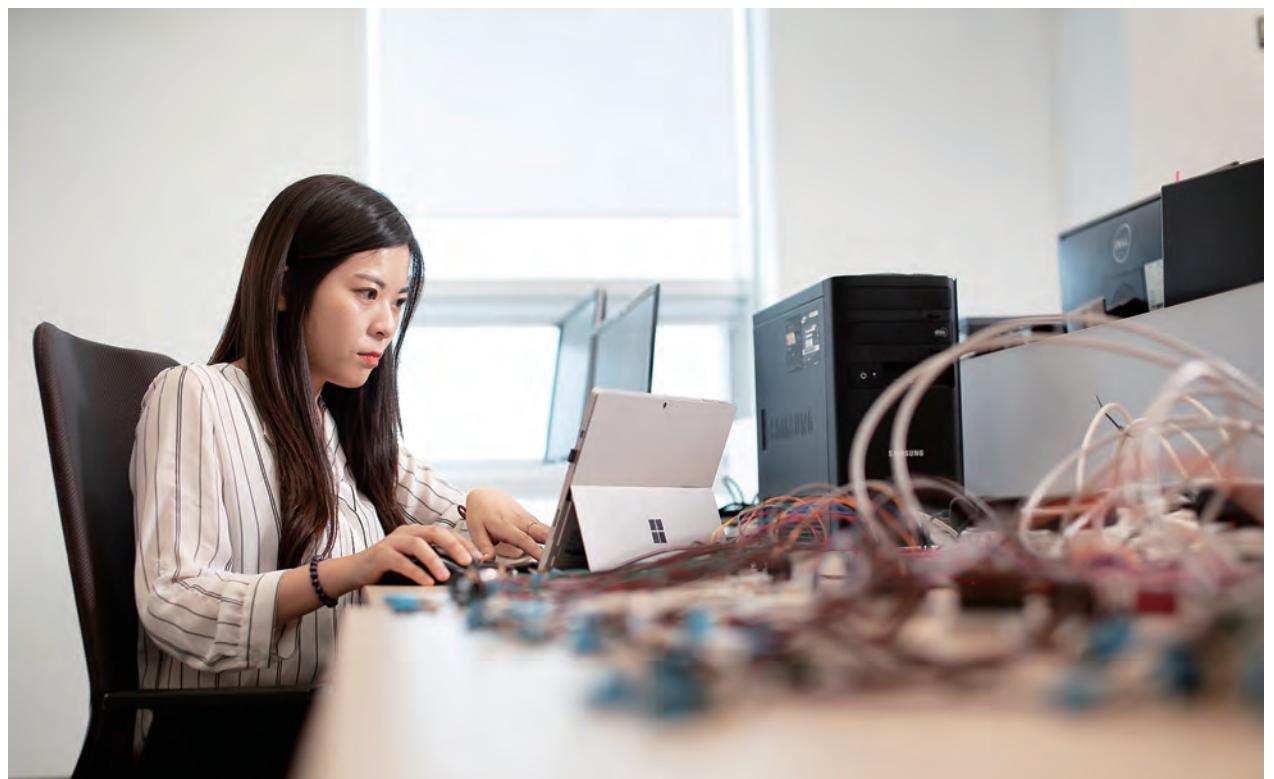
상암·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포항테크노파크 등과의 MoU 체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울산테크노파크·제주테크노파크 등 지역 진흥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역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다.

‘SW융합기술고도화기반조성사업’ 등 정부 R&D과제의 적극적인 수행과 다양한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토양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진흥원과의 협력 하에 ‘ICT 융합 Industry 4.0 조선해양기반조성 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부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결과, 상암·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에서의 시험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인력 규모의 확대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상암·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품질 서비스를 개발해나감으로써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허브시험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



●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